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살고 싶습니다>

지난 주 특별 새벽예배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서 사용하셨던 메타포(Metaphor)는 "씨(seed)"였습니다. '겨자씨 비유'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팽창, 확장'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말하는 겨자씨 크기의 하나님 나라가 땅에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씨가 자라 훗날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여 쉬어갈 수 있을 만큼 팽창, 확장된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으로 비유된 하나님 나라 역시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씨가 자라가고 있는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그 씨는 자란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저는 성장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성장이란 이름으로 해석되는 순간 참 기쁩니다. 성장은 발전이기도 하며 더 좋은 쪽으로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저는 1995년, 신학교에 입학하는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민목회 가운데 이전에 제 자신이 경험했던 실패와는 차원이 다른 실패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때 저는 누구에도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떠안고 그 순간만큼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좌절과 힘듦이 있었지만 폭풍 속에서 잠시 감추어 놓으셨던 태양빛이 그 칠흠같은 어둠을 뚫고 다시금 비취질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야 실패를 매듭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실패'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실패 그 자체는 무엇인가를 시도해 봤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고 도전해 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작가이자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 교수(Peter Drucker)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훌륭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실수를 범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일을 더 많이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높은 자리로 승진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평범한 사람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사람 안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마음 VS 모험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터 홀로 보낸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도 다니고, 기회가 주어질 때 마다 다른 세상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여기저기를 여행하고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섭다. 걱정된다' 는 감정보다 '뭐가 있을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기대되는데?'와 같은 감정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모험을 좋아하시나요? 그렇게 본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사는 것도 모험입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도 모험입니다. 시카고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유독 브릿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자 마음 먹고 오 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계신 것도 모험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맛보고 실수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사람은 실패 때문에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내 삶에 선용하지 못한 사람이 실패자입니다. 실패를 통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을 해와 다른 내년을 꿈꿀수 있다면 어찌 그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일의 '나'를 오늘 기대한다면 그런 '나'가 되기 위해 날마다 또는 가끔 멈추어서 버릴 것과 떠날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질, 바로 어제와 다른 내일의 '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드림



41 S Rohlwing Rd. Palatine, IL 60074 /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 www.chicagobridgechurch.org

차세대 사역자: Ahquwani(Youth), Janice Kim(유/초등부), Grace Lee (유치부),
담임목사: 임무영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예수!

그 분이면 흥분합니다

"2024.1.21 주일설교 중에서....."



